

비카프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전향 양상 연구*

조가(趙珂)** · 이해영(李海英)***

〈차 례〉

- 들어가기
- 전향문제에 대한 비카프작가의 다양한 시각
- 이념의 문제에서 모랄의 문제로 의 약화
- 자아의 상실과 현실과의 타협 거부
-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식민지의 전향문제에 대한 비카프작가들의 특수한 시각을 염두에 두고 비카프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전향 양상을 살펴보았다. 식민지의 전향문제에 대한 비카프작가들의 특수한 시각은 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사회주의자 외 민족주의자, 아나키스트 등이 모두 전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카프작가와 달리 비카프작가는 전향의 문제를 바라볼 때 제3의 관찰자의 자리에 서있다는 점이다. 다같이 동반자 작가로 불렸던 유진오와 강경애는 전향자의 양심 문제를 다룰 때 이념의 문제를 약화하거나 모랄의 문제로 치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이념의 포기 여부와 그로 인한 갈등, 자책감에 치중했던 카프작가의 작품과는 구별된다. 이효석과 최명익, 김사랑의 소설에 나타나는 전향 주인공은 모두 자아를 파괴하고 새 삶을 개척하지 못한 채 파멸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식민지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비타협적 경향을 드러낸다.

[주제어] 비카프작가; 한국 전향문학; 전향 양상; 현실인식

* 이 저서 또는 논문은 2022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 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22-OLU-2250001).

** 중국해양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중국해양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교신저자

1. 들어가기

본고는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1930년대 중후반부터 1940년대 초까지 창작된 비카프작가¹⁾들의 전향문제에 관련된 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설에 나타난 전향 양상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문학사에서 전향문제를 본격적으로 작품화한 시기는 카프 해산 이후였다. 따라서 문학사에서 전향문학을 언급할 때 자연스럽게 카프작가가 창작한 작품으로 인식하게 된 경우가 많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일차적으로 전향이 '사회주의 사상의 포기'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일반적으로 전향소설을 "전향한 작가의 소설 중에서 전향 문제를 다룬 소설 또는 전향 문제를 주요 제작동기로 한 소설"²⁾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안 전향문학은 카프작가만이 소유한 문학 장르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기부터 1940년대 초까지의 시대적 상황과 한국 문학사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새로운 단면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카프에 가담하지 않은 작가, 본고

1) 비카프작가라는 용어는 김윤식과 김인옥의 논의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이 용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김윤식은 *동반자작가나 비카프작가가 쓴 전향소설*은 "전향소설의 형성·전개·쇠퇴과정을 문제삼은 소설사적 시각에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김인옥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 "1930년대 후기 한국 전향소설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본고의 대상이 되는 일체화 전향소설은 '카프해체 이후 구 카프작가들에 의해 씌어진 사상운동가들의 전향을 다룬 작품'을 가리킨다. 일체화에 발표된 작품 가운데 이와 유사한 범주의 작품으로 1920년대 말기 『朝鮮之光』 등에 발표된 '과거의 사상운동가'의 출몰을 그린 일련의 작품, 그리고 김남천의 카프 1차 사건으로 검거되었다가 출몰한 후에 쓴 「男便 그의 同志」, 「물」 등, 그 외에 동반자 작가나 비카프작가가 쓴 '전향문제를 다룬 작품'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전향소설을 카프해체 이후 구 카프작가들이 현실대결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창작된 소설들로 보는 본고의 입장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작품들이다. 물론 동반자작가나 비카프작가가 쓴 작품 가운데는 전향의 심리를 날카롭게 묘사하거나 과거 좌익사상운동가의 전향문제를 심도있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구 카프작가들에 의해 씌어진 전향소설 못지않게 주목되는 점이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 [밑줄: 필자·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152쪽; 김인옥, 「1930년대 후기 한국 전향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7, 10-11쪽.

위의 내용을 보면 김윤식·정호웅이나 김인옥은 모두 "동반자작가와 비카프작가"라고 표현함으로써 동반자작가와 비카프작가를 병행되는 용어 개념으로 처리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동반자작가이든 신인작가이든 모두 카프 조직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근거로 카프의 맹원이 아니지만 전향 문제에 관한 소설(1930년대 중후반부터 1940년대 초까지)을 창작한 작가들을 통칭하여 비카프작가로 지칭하고자 한다.

2)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161쪽.

에서는 비카프작가로 지칭한 작가들도 전향문제에 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작품을 창작했다는 점이다.

한국 전향소설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카프작가의 전향소설에 관한 연구가 전향소설 연구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³⁾ 전향의 시각으로 비카프작가의 소설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분산적이고 소략한 상태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이는 한국 전향문학 연구의 불

- 3) 카프작가의 전향소설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연구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김윤식, 『김윤식 선집 1 · 문학사상사』, 솔 풀판사, 1996;
 김윤식, 『김윤식 선집 2 · 소설사』, 솔 풀판사, 1996;
 김윤식, 『김윤식 선집 3 · 비평사』, 솔 풀판사, 1996.
 김윤식 · 정호흥,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김동환, 「1930년대 한국 전향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7;
 진영일, 「일제 강점기 전향소설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1989;
 장성수, 「1930年代 傾向小説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89;
 권보드래, 「1930년대 후반의 프롤레타리아작가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4;
 김인옥, 「1930년대 후기 한국 전향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7;
 김효정, 「1930年代 轉向小説의 意識 變貌 樣相 研究」, 大邱曉星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1998
 유상근, 「1930년대 후반 전향소설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07;
 장성규, 「1930년대 후반기 소설 장르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2;
 정하늬,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4.
 특정한 카프작가의 전향소설에 대한 연구:
 김용선, 「김남천 전향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2;
 나경아, 「김남천 전향소설의 탈식민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8;
 영본강, 「김남천 소설에서의 전향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4;
 김희자, 「李箕永 小説 研究」,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1990;
 장석홍, 「韓雪野 小説에 나타난 계급의식의 변모 양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1996;
 김종현, 「한설야 단편소설의 이념성 변화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09.
- 4) 본고에 다루고 있는 비카프작가의 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다음과 정리하게 된다.
 박영희, 「현대조선문학사」, 김윤식, 『박영희 연구』, 열음사, 1989;
 김윤식, 『김윤식 선집2 · 소설사』, 솔 출판사, 1996;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권희영, 「1930년대 한국 전향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유문선, 「동반자작가의 전향에 관한 시론 : 현민 유진오의 경우」, 『冠嶽語文研究』 제8집, 1983;
 곽형덕, 「김사랑작 〈향수(鄉愁)〉에 있어서의 ‘동양’과 ‘세계’ - ‘전향’의 전제 조건을 둘러싸고」, 『현대문학의 연구』 5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나병철, 「김사랑 소설에 나타난 사상적 전향과 문화의 기억」,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7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19;
 박영희, 김윤식과 권희영의 연구는 전향문학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으며 전향문학 연구의 영역을 넓혔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 비카프작가의 작품에 대한 고찰은 여전히 분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카프작가의 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구의 중심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유문선은 프로 문학과의 관계에서 동반자작가의 존재 의미를 파악하고

균형성을 초래함과 아울러 전향문학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작가론 차원의 논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하여 텍스트 속에 나타난 전향 양상에 대한 탐구가 소략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전향문학의 시각으로 유진오의 「김강사와 T 교수」, 「가을」, 강경애의 「번뇌」, 이효석의 「장미 병들다」, 최명익의 「심문」, 김사량의 「향수」,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 총 7편의 소설에 나타난 전향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작품들을 선정한 이유는 카프작가의 전향소설에 비추어볼 때 이 작품들은 비카프작가들의 전향문제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으며 전향문제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카프작가의 전향문학 연구에 국한되어온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전향문제를 접근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비카프작가의 전향에 관한 창작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분산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비카프작가의 전향 관련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향문제에 대한 비카프작가의 다양한 시각

카프의 1차, 2차 검거와 해산,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의 발발 등 시대적 위기와 함께 나타난 전향문제는 1930년대 내지 1940년대 초의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신질서의 구축, 내선일체의 촉진 등 일제의 대외 침략 정책으로 식민지 조선의 전향문제는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공간적 맥락에서 비카프작가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전향 양상을 구명하

전향자의 현실 대결 과정에서의 사상 선택과 소시민성의 극복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유진오의 창작을 고찰하였다. 나병철은 「향수」를 사상적 전향과 숨은 영혼의 구원의 미학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하였고 곽형덕은 「향수」에 나타난 '전향'의 논리는 '일본인 - 지나인 - 조선인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고 주장하였다.

기 위해서는 우선 전향에 대한 비카프작가의 시각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전향’의 일차적 의미는 ‘사상의 포기’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사상의 포기’라는 것은 아주 희미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그 ‘사상’이 도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엇갈린 관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카프작가와 비카프작가의 창작에 나타난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카프작가는 전향문제를 부각할 때 전향의 주체를 사회주의자에만 국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아래의 표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1]

	작품	작가	전향자의 신분	발표 시간	발표지
1	「수난」	이효석	사회주의자	1934.12	중앙
2	「김강사와T교수」	유진오	사회주의자	1935.1	신동아
3	「번뇌」	강경애	사회주의자	1935.6-7	신가정
4	「장미 병들다」	이효석	사회주의자	1938.1	삼천리
5	「치숙」	채만식	사회주의자	1938.3.7-14	동아일보
6	「해바라기」	이효석	사회주의자	1938.10	조선지광
7	「가을」	유진오	사회주의자	1939	문장
8	「십문」	최명익	사회주의자	1939.6	문장
9	「두꺼비」	김동리	삼촌: 민족주의자 종우: 신분 불명	1939.8	조광
10	「삼대」	정비석	사회주의자	1940.2	인문평론
11	「고고」	정비석	춘파선생: 민족주의자 김석호: 사회주의자	1940.3	문장
12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	김사랑	아나키스트	1941.2	문장
13	「향수」	김사랑	민족주의자	1941.7, 1942.4	문예춘추, 甲鳥書林

알려진 바와 같이 카프작가들이 창작한 소설에 나타난 전향 주인공은 모두 사회주의자였다. 그러나 위의 표에 나타나듯이 비카프작가들의 창작에서 전향의 주체는 사회주의자 외 민족주의자, 아나키스트, 그리고 신분불명의 사상가 등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에 대해 그 원인

을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시대적 측면으로 식민지 조선에서의 사상운동은 실제로 민족독립운동의 일부분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의 정치사상과 이념은 1919년의 3·1운동까지는 민족주의 노선을 기본으로 통일적 방향성을 전개하다가 3·1운동 이후에는 여러 가지 대안적 이념들이 수용되고 정착되기 시작하였다.⁵⁾ 즉 사회주의, 민족주의, 아나키즘 등은 모두 이 단계로부터 한국에 활발하게 들어온 것이다. 그들은 각각 다른 진영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에서 점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사회주의의 수용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도입할 수 있는 원초적 계기는 바로 피식민지로 전락된 민족의 현황이었다. “성공한 러시아혁명을 통해서 급진적 변혁의 가능성을 증거하는 한편, 볼셰비키 정부의 식민지·약소민족 해방운동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시책을 통해서 유토 피아적인 희망을 제시한다”⁶⁾는 것으로 인해 사회주의는 식민지 조선의 혁명가들에게 강한 흡인력을 가지게 되었다. 1918년에 설립된 정당 한인사회당으로부터 사회주의운동은 활발하게 조선에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21년 상하이에서 성립된 고려공산당의 강령⁷⁾에 나타나듯이 민족해방은 한국 사회주의운동의 전제적 목적이라고 하였다. 그 후 1925년에 발족한 조선공산당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조선민족을 절대 해방시키기 위하여 조선의 제종 역량을 집합하여 민족혁명 유일전선을 작성할 것”⁸⁾을 통하여 사회주의는 조선민족의 해방을 일차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韓國의 民族運動은 民族的 社會主義, 社會主義的 民族主義의 色調가

5) 김기훈, 「한국민족주의 운동의 이념적 분화」,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2013, 316쪽.

6) 전상숙, 「계급의 발견」, 『한국정치사상사』, 백산서당, 2005, 680쪽.

7) 고려공산당 강령에서 민족독립에 있어서 ‘우리는 민족적 해방이 사회혁명의 전제(前提)임을 적절히 느끼는 자이다. 현항의 모든 혁명단체에 대해서는 대성(大成)에 도달하는 단계로서에 우리의 주장과 부합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찬도한다.’ 『上海 高麗共產黨의 宣言, 綱領 및 黨規』, 1921.5.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29』, みすず書房, 421-422면; 송건호·강만길, 『한국민족주의론』, 창작과 비평사, 1982, 110쪽에서 재인용.

8)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29』, みすず書房, 421-422면; 송건호·강만길, 『한국민족주의론』, 창작과 비평사, 1982, 110쪽에서 재인용.

진작부터 짚었고, 이러한 相互影響의 要素 때문에 解放前까지의 共產主義 運動은 民族解放運動史에서 除外될 수 없는 것이다”⁹⁾는 말을 통하여 “식민지시대의 사회주의 운동도 항일운동이요, 독립운동이요, 민족국가 수립 운동의 일환이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우익 민족주의의 운동과 노선을 같이 하기도 하였다”¹⁰⁾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아나키즘운동을 검토할 차례다. 1910년 국권 상실을 전후하여 한국인들은 사회진화론 극복이라는 사상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나키즘을 수용하였다¹¹⁾.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나키즘은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구별된 제3의 이념으로 한국의 민족독립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구상을 제공하였다. 문상석¹²⁾에 의하면 식민지 조선에서 아나키즘이 민족주의와 접촉할 수 있는 증거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배경 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주권의 상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구조의 계급갈등의 심화, 사회적으로 전통적인 공동체 및 도덕경제의 시스템의 파산, 역사적으로 열등한 민족으로 규정하던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민족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¹³⁾았다는 여러 가지 요소는 조선의 아나키스트들과 민족주의자들의 단결의 가능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실제로 이런 공통적인 민족적 상처로 인해 어떤 주의를 신봉하든지간에 주의자는 우선 조선민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민족적 기억을 지니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는 데에 공통된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아나키스트들은 “민족을 개별 자유를 가진 완전한 존재로서 바라보는 행위와 분석의 단위로 보는 것”¹⁴⁾이었다. 이것은 아나키즘은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한다”¹⁵⁾는 지향과 관련되어 있다. 개인의 절

9) 조지훈, 「한국민족운동사」, 『한국문화사대계』 1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64, 737-738쪽.

10) 송건호·강만길, 『한국민족주의론』, 창작과 비평사, 1982, 107쪽.

11) 이호룡, 「한국인의 아나키즘 受容과 展開」,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0, 101쪽.

12) 문상석, 「아나키즘과 민족주의의 접촉점(interface)」, 금인숙·문상석·전상숙, 『한국 민족주의와 변혁적 이념체계』, 나남, 2010.

13) 문상석, 위의 책, 53-55면 참조.

14) 문상석, 위의 책, 54쪽.

대적인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제1의 요소는 바로 강권이다. 조선민족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피식민지로 전락되는 것)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일제라는 강권이었다. 조선민족의 부자유는 곧 조선 민중의 부자유를 의미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민족의 자유와 동일시했을 때 아나키즘은 민족주의와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

물론 반일이라 하더라도 일제와 일제의 식민지배 체제를 인식하는 데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각 진영의 실천 방식은 똑같을 수는 없었으나 이들은 무엇보다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 민족독립을 추구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이자 공동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로써 비카프작가들이 각각의 인식 틀에 따라 주의자의 신분을 설정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카프 조직체의 사회주의적 지향에 동조하지 않아도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반일이라는 일차 목표는 일치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은 일제의 전향 요구의 심화와 비카프작가들의 개인적 창작 경향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1930년대 한국문학사의 발전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운동의 전위적 조직 카프는 후기에 이르면서 그 급진적 경향으로 인해 일제의 강한 진압을 받게 되었고 결국 해체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전향 문제를 언급할 때 그 전향의 주체를 카프작가로 여기게 된 것은 식민지 조선의 전향 요구가 카프 문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의 전향이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일제의 식민통치의 심화로 카프작가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인, 내지 전 민족이 전향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조선에서의 불온사상으로는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민족주의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탄압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어느 것이나 “코쿠타이(국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상이기 때문”¹⁵⁾이라는 지적을 통해서도 이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카프작가들도 이러한 전향의 강제적 요구를 절실히 느

15) 이호룡, 「한국인의 아나키즘 受容과 展開」,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0, 101쪽.

16) 김윤식, 『김윤식 선집 2·소설사』, 숲 출판사, 2996, 213쪽.

길 수밖에 없었고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피지배 민족의 지식인으로서 자체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단체의 운명, 내지 전 민족의 운명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결국 전향을 전 민족의 문제로 여기게 되었다.

위의 표에 제시한 총 8명의 비카프작가들은 분명하게 좌우익의 진영으로 구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적 공통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가들의 창작 경향과 결합하면 대충의 윤곽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 작가들 중에서 이효석, 유진오, 강경애, 채만식 등 동반자 작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들은 정식 카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상적으로 카프의 작가들과 동조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카프작가와 마찬가지로 이들 동반자작가들은 작품에서 사상운동가의 신분을 사회주의자로 설정하였다. 김윤식에 따르면 동반자 작가로 문단에 데뷔하여 활동하다가 계급사상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작가로 이효석, 유진오, 채만식 등을 들 수 있다¹⁷⁾. 프로문학의 퇴조기, 즉 1차, 2차 검거를 당하고 해산을 맞이한 시대적 상황 앞에서, 카프와 동조하였던 동반자 작가들은 또 다시 그 사조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전향의 강제적 요구에 대해 나름대로 부각하였다.

좌익 계급적 사상을 옹호하던 동반자 작가 외에 ‘신세대 작가’¹⁸⁾ 중에서 김동리, 최명익, 정비석¹⁹⁾도 전향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을 발표하였다. 신세대는 기성세대와의 대립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신세대작가가 문단에 전면적으로 진출하는 시기는 프로문학을 주장한 기성세대가 커다란 좌절을 당한 시기였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문학의 순수성을 무시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작가

17) 김윤식, 『김윤식 선집 2·소설사』, 솔 출판사, 1996, 218쪽.

18) ‘문단에서 미미하나마 일정한 이름을 자지고 있으나 아직 중견이나 대가의 열(列)에 오르지 못한 일군의 작가.’ 임화, 「신인론」,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19) ‘이 시기 신세대는 통상 1935년 프로문학의 해체를 즈음해서 등단한 김동리, 정비석, 현경준, 현덕, 차자명, 정인택, 김영수, 김정환, 이근영, 계용목, 박노갑, 김소엽, 이선희, 허준, 유항림, 최명익, 김이석, 구연목, 최인욱 등을 말한다.’ 강진호, 「1930년대 후반기 소설 연구: 탈이념과 신세대 소설의 분화과정」, 『민족문학사연구』 4권, 1993, 290쪽.

의 개성을 발휘하고 인간성을 탐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있어 “문학이란 ‘문학 자체’일 뿐이지 결코 다른 목적이 개입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었다.”²⁰⁾ 이런 맥락으로 보면 김동리, 최명익, 정비석이 전향문제와 관련된 작품을 창작한 것은 이전의 목적의식이 강한 문학예술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전향자의 인간성을 탐구하는 목적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동반자작가, 신세대작가 외에 전향 문학을 창작한 또 하나의 독특한 존재로서 김사량을 꼽을 수 있다. 1940년대 들어 일제에 의해 구축된 동아시아의 신질서와 내선일체론은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에게 자발적 전향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이로 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전향과 친일은 명쾌한 분리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이르면 전향은 카프계 작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는데 일제의 통치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조선인은 모두 전향의 요구를 받고 있었다. 불온사상의 영유자라는 죄명으로 경찰에 검거되었던 경력이 있는 김사량은 당연히 일제 식민당국으로부터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상으로 사회주의에 동조하였던 동반자 작가, 프로문학의 지나친 목적의식 강조에 대해 비판했던 신세대 작가 및 악화된 식민지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김사량 등이 전향의 문제를 주목하고 나름대로 전향의 양상을 부각하였는데 이들은 스스로의 입장에 기반함으로써 전향의 주체를 사회주의자에 국한시키지 않았다.

카프작가에 비해 비카프작가가 전향문제를 관찰할 때에 나타난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입장의 차이였다. 다시 말하면 카프작가들은 전향의 현장에 있었고 직접적으로 전향의 주체가 되었던 것에 비해 비카프작가들은 전향을 바라보는 제3의 관찰자의 자리에서 있었던 점이다. 이것은 체험의 영역으로 작가의 창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카프조직체에 가담한 작가들이 조직체의 훈련을 받고 상대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깊

20) 강진호, 위의 책, 290쪽.

이 받은 것에 비해 비카프작가들은 단체적 훈련을 받지 못했고 사상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희박했다. 따라서 비카프작가가 가장 주목한 문제는 사상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입장의 차이로 인해 비카프작가들은 전향에 대해 보다 더 객관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카프작가의 전향소설에서는 전향의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작품이 직접적으로 전향자를 1인칭 서술자로 설정함으로써 작품이 강렬한 개인의식을 띠게 된다. 이처럼 카프작가의 전향소설은 대부분 전향한 주인공을 작가의 분신으로 삼았던 것에 반해 비카프작가의 작품들에서는 전향자를 작가의 분신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찰자의 위치로부터 출발하여 전향자의 모습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수난」,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 등 작품은 액자형 구조를 활용하였는데 전향자가 내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외부 이야기의 화자인 제3자의 시각을 통하여 전향문제를 다루는 등 뚜렷한 객관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관찰자의 시각으로 전향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전향단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물론 관찰자의 신분은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비카프작가들이 내부로부터 전향문제를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명확한 목적의식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카프작가의 경우, 본인도 전향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설에서 과거 문제의 청산과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라는 목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에 비해 비카프작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창작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에서는 강한 능동성이나 개척의식을 찾기 어렵다.

3. 이념의 문제에서 모랄의 문제로의 약화

식민지 조선에서 전향은 1930년대 중반 카프의 검거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념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생활세계어로, 다시 말하면

소시민으로 귀환한 전향자들은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많은 모순을 겪게 되었으며 양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카프작가뿐만 아니라 비카프작가도 전향자의 내면적 갈등을 부각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비카프작가가 형상화한 내면적 갈등을 지닌 전향자의 모습을 고찰하고자 한다. 유진오의 「김강사와 T 교수」, 「가을」, 강경애의 「번뇌」는 여기에 속한다.

1935년 1월에 발표된 현민 유진오의 「김강사와 T교수」는 동반자작가로서 활동하던 경력을 지닌 유진오의 카프 해산 전후의 심경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구직 문제로 여러 가지 내면적 모순을 겪게 된 주인공 김만필을 부각하고 있다.

김만필은 동경제국대학 독일문학과 출신의 수재이며 졸업한 후 일 년 반 동안이나 실업 생활을 겪고 전에 멸시하던 N교수의 추천으로 일자리를 얻은 청년이다. 서울에 돌아온 후 또 H과장의 알선으로 S전문학교의 독일어 강사가 된 김만필은 출근 첫 날에 학교로 가는 길에서 오늘은 “그의 울울튼 일 년 반 동안의 톱툰생활을 청산하는 날”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렸다. 이러한 김만필의 모습은 카프작가의 전향소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상이다. 이기영의 「돈」, 「수석」, 「고물철학」, 한설야의 「이념」 등 작품에서 전향자들은 모두 구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가족, 친구 등 외부의 간청과 요구에 부득이하게 취직을 가게 되지만 그들은 결코 김만필처럼 흥분분한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운동에 투신하였던 그들에게 있어서 구직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최악의 결정이며 세속적인 인간으로 전락한 표징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구직은 사상을 포기하고 이념의 세계와 결별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념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전향자들에게 있어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이념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 되는 것이다. 그들에 비해 김강사에게 구직은 이념 문제와 무관하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적극적 의미를 지닌 선택이다.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기쁜 마음으로 입사한 김강사에게 최우선의 과제는 이념 견지 여부가 아니라 세상 물정 속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지키느냐는 것이었다. 이로써 유진오는 전향의 핵심 문제를 이

념적인 문제로 부각시키지 않고 도덕적 측면의 문제로 전환시킨 것이다.

소설에서 김만필의 취직으로 인한 흥분은 재빨리 입사 후의 차별대우, 뇌물 수수 등 세상물정 문제, 즉 모랄²¹⁾의 문제로 인해 초래된 번뇌와 모순으로 대체되었다. 김만필이 직면한 첫 번째 내면적 갈등은 교장에게서 차별 대우를 받은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왕에 교장 집에서 친절한 대접을 받던 김만필은 이제 교장실에서 하급으로서 저절로 고개가 숙어져 인사를 한 것과 ‘우리 학교에서 조선 사람을 교원으로 쓰는 것은 자네가 처음이니까 한층 더 주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게’라는 교장의 말에 김만필이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힌 것, 그리고 취입식 때 교장이 간단하게 김만필을 소개한 후 몹시 공손한 태도로 교련을 맡은 A소좌에게 감사의 말을 드렸다는 것도 이 학교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인할 수 있다. 식민 관계에서는 피식민자로서, 직장에서는 하급자로서 이중의 차별 대우를 받은 김만필은 학생들의 경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의 모순을 느끼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인생의 모순의 축도를 자기 자신이 몸소 보이고 있는 것같이 생각되었다. 지식 계급이란 것은 이 사회에서는 이중 삼중 사중, 아니 칠중 팔중 구중의 중첩된 인격을 갖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어떤 자는 그 수많은 인격중에서 자기의 정말 인격을 명확하게 쥐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자는 자기 자신의 그 수많은 인격에 현혹해 끝 끝내는 어떤 것이 정말 자기의 인격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자기는 이 두 가지 중의 어느 것인가?²²⁾

위에서 보여주듯이 복잡한 관계망을 통해 모처럼 강사직을 구하게 된 김만필은 자기가 지식계급으로서 여러 가지 인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여기서 문제시되는 점은 그가 어느 것이 자기의 진정한 인격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과거의 좌익 경향을 감추고 현실과 타협한 김만필은 내면에서 여전히 “양심과 타협의 양극 사이를 시계추처럼 왕복하는

21) 모랄, 영어 ‘moral’의 음역.

22) 유진오, 「김강사와 T 교수」, 『한국소설문학대계 16』, 동아출판사, 1995, 133쪽.

것”²³⁾이어서 일반적인 소시민과 구별된다. 그러나 여기서 김만필의 모순은 이념을 고수하느냐 포기하느냐의 문제에 있지 않고 구직을 위하여 도덕적 양심에 어긋나느냐 마느냐는 아주 세속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이념 문제를 모랄의 문제로 전이시키는 경향은 김만필과 T교수와 의 교제에서 더욱 분명하게 노출되어 있다. 학교에서 T교수만이 김만필을 몹시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가 김만필에게 접근한 것은 목적이 있었다. 그는 고의로 김만필이 집필한「독일 신홍작가 군상」이라는 논문을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 논문은 독일의 좌익작가의 활동을 소개한 것이므로 학교가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일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T교수는 김만필의 문학 연구 능력을 칭찬한 것 같았으나 사실은 김만필의 이 비밀을 이용하여 그를 협박한 것이었다. T교수가 김만필을 위협하는 이유는 신념을 포기시키거나 일제체제에 순응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부의 파벌 투쟁에서 자기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념과 무관한 파벌 투쟁에 가담하도록 하는 요구가 김만필에게는 “무슨 무서운 악몽에 붙들린 것 같아서”²⁴⁾ 강한 압박감과 갈등을 가져왔다.

김만필의 내면적 갈등은 스즈키라는 학생과의 만남에서 지속된다. 스즈키가 “선생님이 동경제대서 문화비판회원으로 활동하실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지요?”²⁵⁾라는 말을 꺼냈을 때 김만필은 칭찬 병력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현재 지위에 상당히 불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 역시 이념과 무관하며 자신의 강사직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기인한다. 이 점은 홍사중의 지적과 같이 김만필이 지니고 있는 “사상의 피상성과 경박성”²⁶⁾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하며 지식인의 나약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시기는 일제 당국이 격렬한 사상 탄압을 진행했던 시기이며 사상범보호관찰제도²⁷⁾는 아직 반포되

23) 변정화, 「俞鎮午 作品考: 前期時代를 中心으로」, 『원우논총』 제1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원우회, 1983, 106쪽.

24) 유진오, 「김강사와 T교수」, 『한국소설문학대계 16』, 동아출판사, 1995, 144쪽.

25) 유진오, 위의 책, 146쪽.

26) 홍사중, 『한국지식의 고향』, 탐구당, 1973, 218쪽.

지 않았기 때문에 김만필이 사상운동을 한 경력을 감추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리하여 소시민 지식인으로 회귀한 김만필은 부득이하게 과거의 경향을 숨겼던 것이다. 결국 김만필의 내면적 갈등은 세속적 세계로의 회귀인가 아니면 이념에 대한 집착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고 ‘모처럼 얻은 그의 지위와 자기의 양심과를 저울에 달아가’는 모랄의 문제에 멈추고 있는 것이다.

소설에서 김만필의 내면적 갈등이 모랄의 문제로 부각되는 가장 뚜렷한 상징물은 바로 과자상자였다. 이 과자상자가 지닌 특수한 의미는 T교수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내가 과자상자 들고 간 것 보았지요. 세상이란 다 그런 겹니다. 우리 교장도 그런 것을 대단 생각하는 사람이니 연말도 되구 허니 한번 과자나 한 상자 사가지구 찾아가 보시란 말이요.”²⁸⁾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이 과자상자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매개물이다. 김만필이 그 과자상자에서 발견한 것은 자신의 속물성이었다. 마음속에서 아무리 일자리를 위해서라 해도 이런 짓까지 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선물을 보내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은 나의 인격이 아니라 도리어 받는 자의 인격이 아닌가”²⁹⁾라고 자아 변명을 하듯이 스스로를 설득하는 아주 모순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리하여 그에게 문제시되는 것은 이념 세계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뇌물 주고받기라는 모랄의 문제이다. 이것은 전향자의 구직 문제에 대한 카프작가의 작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설야의 「이념」에서 전향자 민우가 아내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27) 「思想犯保護觀察法案」, 『東京朝日新聞』, 1936. 4. 29, 266쪽. 한국에서는 사상범보호관찰제도를 1939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전향하지 않은 사상범의 재범을 예방하고,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키며, 모든 사상범의 정신적 및 경제적 노력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리차드 H. 미첼, 김윤식 역, 『일제의 사상통제』, 일지사, 1982, 135쪽; 장성수, 「1930년대 후반의 한국 “전향소설” 연구」, 『한국언어문학』 28집, 한국언어학회, 1990, 228쪽에서 재인용.

28) 유진오, 「김강사와 T 교수」, 『한국소설문학대계 16』, 동아출판사, 1995, 149~150쪽.

29) 유진오, 위의 책, 150쪽.

고 국민가요나 시국영화, 소설 등 일제에 영합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고 출옥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보호관찰소에 가서도 취직을 하지 않는 것은 한설야가 구직 문제를 이념 문제와 직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7년 10월 『조광』지에 발표된 이기영의 「돈」도 전향자 경구의 실업으로 가족이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경구가 예술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현실에 영합하지 않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민우, 경구, 그리고 김만필은 모두 내면적 갈등을 겪게 되는데 민우와 경구는 모두 이념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내면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김만필은 이념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지위 내지 도덕성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랄의 측면에서 자신의 모습을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만필이 결국 교장에게 과자상자를 보내지 않은 것은 현실과 타협한 나약한 지식계급이라고 해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어 아직 양심의 가책 없이 세속에 치우치지 못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세상 물정에 어떻게 저항해야 할지 모르는데 결국 그는 이러한 현실에서 일종의 소외의식을 느끼며 도피적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주인공의 소외의식은 외부와의 교제를 단절하는 데에 나타나고 있다. 많은 모순을 알고 있지만 나갈 방법이나 용기도 없는 무력한 존재로 된 김만필은 현실에 대한 정면적인 대결을 피하였다. H과장의 추궁에 그는 끝까지 “사상이니 무어니 그런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³⁰⁾라고 자신의 과거를 부인함으로써 현실 앞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최후의 방어선마저 무너지게 된다. 김강사의 이러한 모습은 이기영의 「수석」에서 나타난 금융회사에 취직했으나 불합리한 업무와 엄격한 위계질서로 인해 사직을 결심하고 ‘교육자의 열정’을 품고 교사가 되기로 한 전향자의 모습과 큰 차이가 나타난다. 모두 상하급의 관계로 자유로울 수 없는 구도인데 김강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로 불안해하며 도피적인 태도를 보여주지만 이기영의 「수석」에서는 직장의 위계질서로 인한 갈등이 전향자가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계기로 처리된

30) 유진오, 위의 책, 153쪽.

다. 다시 말하면 이기영 소설의 중심은 전향자의 불안과 자아 갈등에 있지 않고 좌절을 당한 전향자가 어떻게 신념을 회복하고 다시 새출발하는가에 있다. 「수석」에서 전향자가 교육자로 성장하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신념에 대한 집착이 있³¹⁾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강사와 T교수」의 김만필은 「수석」에서의 전향자와 비슷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기영이 이념적 측면에서 현실을 파악했던 것과 달리 유진오는 모랄의 측면에서 현실을 파악했던 것이다.

끝까지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고 지위만 지키려는 존재로 부각된 김만필의 형상을 통하여 일제의 사상적 진압으로 인한 전향자의 무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지가 약화되면 결국은 자신의 양심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다. 김우중은 이러한 김만필의 부각에 대해 유진오가 ‘카멜레온의 철학’³²⁾, 즉 자아보호를 위하여 현실에 따라 변화해 가는 철학을 내세운다고 비판하였지만 무엇보다 외부에서 계속 몰려온 김만필에 대한 강요된 타협의 요구는 작가 유진오의 식민지 현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한다. 다만 1930년대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작가는 사회현실에 깊이 있게 참여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희미함으로써 작품은 현실에 대한 정직한 고발에만 그칠 뿐이다.

작품이 발표된 1935년 1월 카프는 아직 정식으로 해산되지 않았지만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이미 퇴조기에 처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때였다. 따라서 유진오는 과거에 좌익 이념 운동을 했으나 이제 구직을 위하여 그 과거를 부득이하게 숨기고 결국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김만필이라는 전향 미달형의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카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사조를 추수하던 자신이 시대의 격랑 앞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 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관찰자로서 유진오는 전향자의 이

31) 유상균은 이기영의 「수석」은 ‘생활 장면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전향자의 이념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관념적인 수준의 저항에 머물고 말았다.’라고 평가하였다. 유상균, 「1930년대 후반 전향소설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07, 34쪽.

32)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1968, 255쪽.

념 아닌 상하급의 위계질서, 뇌물 주고받기 등 세속적인 일에서 전향자의 양심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전향문제를 이념에서 모랄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유진오의 창작 경향은 1939년에 발표된 「가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누구보다도 열혈아여서 투쟁이라고 이름 붙은 것이면 이론이든 완력이든 간에 으레 앞장을 섰”³³⁾던 태주라는 전향자가 지금 ‘만주’와 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 밀수입, 아편 장사, 계집장사 등 일을 두루 하고 심지어 황군의 어용상인으로서 활동한다는 소문까지 파다하게 나있다. 태주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돈을 벌어서 서울에 돌아오면 집에도 가지 않고 일류 여관이나 술집으로 다니며 돈을 몰 쓰듯 하는 사람이어서 아무리 보아도 태주는 몹시 타락한 전향자인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잘 사는 것으로 보이는 그가 내면적으로는 강한 갈등을 느끼는 것이다.

“홍 돈! 돈! 돈이 제일이다. 돈! 너이들 알아듣겠니. 돈만 있으면 밥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계집도 살 수 있는 거야! 너이들은 항상 내가 이빠서 이렇게들 늘어앉었니? 홍 이거지 이거야 이게 이쁜게지?”

말하면서 태주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지르더니 일 원짜리 오 원짜리 십 원짜리 함부로 꾸기꾸기 뒤섞인 놈을 한 움큼 꺼내 여자들 코앞에 내뱉들었다.

“하지만 너이들 내가 이거 단 한 장이나 거저 줄 줄 아느냐. 홍 이게 어떻게 해서 번 돈이라구.”³⁴⁾

위의 인용문은 태주가 지나친 음주를 한 후에 자신의 쓰라린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사회에서 태주도 그 돈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돈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번 돈이라구’라는 고함 소

33) 유진오, 「가을」, 『한국소설문학대계 16』, 동아출판사, 1995, 175쪽.

34) 유진오, 위의 책, 177쪽.

리는 태주 마음속에서의 압박감과 갈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대목이 된다. 당당한 방식으로 축적한 부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탈의 행위로 치달는 그는 기형적 자본주의의 침투로 돈의 지배를 당하는 결국 시정에 빠진 속물적인 인간일 뿐이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그는 본격적인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당시에 사상범보호관찰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으나 카프 작가 한설야의 전향소설 「이념」에 나타나듯이 주인공이 이념의 고수와 포기라는 양립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취직을 포기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당시의 환경 속에서 전향자들이 이념을 고수하면서 스스로에게 당당한 직업을 찾지 못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추정할 수 있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자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현실과 윤리적 양심 사이에서 커다란 낙차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을」에서 태주가 보여준 부를 추적해도 자신의 윤리적 타락에 모순을 느끼는 모습은 대표적이다. 주색에 빠지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태주의 가학적 태도”³⁵⁾를 통해 그가 내면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수렁에 갈수록 깊이 빠져드는 모습으로 가득 찬 태주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 시대에 주의자들이 직면해야 하는 암담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그들의 무력감을 절실히 전달하고 있다.

태주는 앞에서 살펴본 「김강사와 T 교수」의 김만필과 마찬가지로 모두 세속에서 모랄의 문제로 내면적 갈등을 겪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강사와 T 교수」에서 세속에 동화되지 않으려던 김만필의 노력은 「가을」에 와서 이미 완전히 사라진다. 이것은 작가의식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동반자작가였던 유진오는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한 적이 있지만 이 사상은 “지식인의 현실 대결 과정에서 선택했던 사상이 관념만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에 부딪

35) 유영윤, 「1930년대 도시소설에 나타난 疎外研究: 兪鎮午와 李無影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31집, 건국대학교, 1990, 46쪽.

히자 스스로 와해한”³⁶⁾ 것이어서 작가는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나 집착이 없으며 카프 조직체에 가담한 문인에 비하면 적극성·치열성이란 비교가안될 정도로 미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³⁷⁾. 현실의 허무와 작가의 비판의식의 약화로 전향자의 윤리적 타락에 대한 스스로의 고뇌와 모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태도는 더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진오와 같이 동반자작가였던 강경애도 모랄의 측면에서 전향문제를 부각하고 있었다. 1935년 6~7월에 『신가정』에 발표된 강경애의 「번뇌」는 애정을 둘러싼 주의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갈등을 통하여 가일층 심화된 전향자의 자아비판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액자형 구조를 가진 이 소설의 외부 이야기는 사회주의자였던 R이 ‘나’의 남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며 내부 이야기에서 R은 1인칭의 화자가 되어 그 자신과 동지의 아내 계순이 사이의 스토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거와 현재의 커다란 변화에서 R은 많은 모순과 갈등에 직면하고 있었다.

R의 과거에 대한 강경애의 부각은 카프작가의 전향소설과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자의 성장과정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카프작가의 창작 경향에 비해 강경애는 「번뇌」에서 한 사회주의혁명가의 튼실한 성장을 섬세하게 서술하였다. 과거에 R은 혁명의 시련을 거치면서 이론이나 실천 측면에서 점차 단련된 사회주의자였다. 처음에 주의자가 된 계기가 우연히 적당에게 붙들려 갔던 것이어서 “나이 어렸더니 만침 또 코치 받은 시일이 은 것만큼 무슨 철저한 깨달음에서가 아니라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나 역시 그 물에 젖었”³⁸⁾다는 그 자신의 고백처럼 R 역시 이념 수용에 있어서 피상적인 면을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피식민지의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사상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한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개 시류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시대적 분위기에 맞추어 활동함으로써 그들의 사상 수용은 단지 관념적인 면에만 머무를 뿐이다³⁹⁾. 혁명 초기 주

36) 유문선, 「동반자작가의 전향에 관한 시론: 현민 유진오의 경우」, 『冠嶽語文研究』 제8집, 1983, 385쪽.

37) 김윤식, 『김윤식 선집 1·문학사상사』, 숲 출판사, 1996, 360쪽.

38) 강경애, 「번뇌」,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1999, 581쪽.

39) 김윤식, 앞의 책, 209쪽 참조.

인공 R의 이러한 모습은 동반자작가는 사회주의 사상을 관념적으로 수용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김윤식의 지적⁴⁰⁾과도 상통한다. 그러나 다른 작가와 달리 강경애는 이 문제점을 성실하게 지적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경애의 남편 장하일이 사회주의자들과 깊은 교우 관계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강경애는 사회주의자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32년 7월 1일 『삼천리』지에서 발표된 김경재의 「最近의 北滿情勢, 動亂의 間島에서(續)」에서 김경재, 이병립 등과 장하일의 교우 관계를 언급하였다. 김경재와 이병립이 1926년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검거되어 각각 3년과 4년의 투옥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⁴¹⁾을 고려한다면 강경애는 사회주의 이념을 매우 가까이에서 접근하고 사회주의자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작품에서 R은 관념적으로 사상을 받아들이는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혁명의 현장으로 나아가 큰 성장을 이룬 점이 특징적이다. 일약 주의자가 된 후 R은 러시아에서 몇 해를 무장 운동을 하고 ‘만주’로 나왔다. ‘만주’에서 계속 투쟁을 진행하며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주건을 가지게 되었고 민중의 수난을 절실히 목격하면서 그들의 역량을 깨달았고 ‘만주’에서의 혁명 투쟁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려는 결심을 했다. 이러한 피와 땀으로 이룬 실천 활동을 통하여 R은 강한 체력과 의지를 키웠다. 그에게 있어서 결혼과 같은 사적인 일은 너무나도 하잘것 없는 문제로 여겨졌으며 민족과 민중 앞에서 개인의 욕망은 아주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작가는 이론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갖추게 되고 실천적으로 혁명의 시련을 겪은 한 사회주의 혁명가의 굳센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투옥을 분수령으로 R의 과거와 현재는 강한 낙차를 이루게 된다. 무엇보다 입옥하는 동안에 R이 제일 그리워하게 된 것은 바로 자유였다. 이

40) “그들(동반자작가)에겐 좌익사상의 선택이 다분히 시류적인 것이었고, 그러기에 삶이 변할 때 그것을 버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수준에서 멈추고 만다.” 위의 책, 220쪽.

41) 최학송, 「만주체험과 강경애 문학」,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07, 58쪽 참조.

점은 1936년 2월 『조광』지에 발표된 카프작가 한설야의 「태양」에서 일 년 반의 감옥 생활을 하며 감옥의 철문을 나선 주인공이 가장 그리워한 것이 바로 태양이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자유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불안과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심경을 말해준다. 이리하여 전향자들에게 출옥은 자유와 해방감을 획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런 해방감은 우선 동지들의 변절에 대한 환멸로 대치되었다. 출옥하는 날에 용정역에서 R을 마중하러 온 동지가 한 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지들을 찾아보니 한 동지는 돈벌이를 위하여 집을 떠났고 한 동지는 엔지로 이사했고 한 동지는 영사관의 순사로 일하게 된 사실 앞에서 R은 큰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환경이 변함을 따라 인심도 변했을 것”⁴²⁾을 부인하지 않지만 양심적으로 동지들의 변절을 받아들이지 못한 R은 동지들의 적극적 전향에 대해 분개하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R은 「태양」에서의 주인공처럼 동지들의 변절에서 자아 반성의 기회나 잘 살림 방법을 얻지 않았다. 이것은 작가의식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한설야는 카프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본인도 전향의 요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작품에서의 주인공이 실은 그의 분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주인공이 동지들의 변절에서 자기반성의 계기를 얻는 것은 새로운 주체 건설을 모색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경애는 R의 동지들의 변절을 부각함으로써 출옥 후 R이 받은 큰 충격을 보여주고 동지들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그들과 같이 타락하지 않으려는 결심을 드러냈다. 동시에 뒷부분에서 윤리문제로 환멸을 느낀 R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하여 복선을 깔아둔 것이다.

R에게 깊은 내면적 갈등을 일으킨 것은 동지의 아내와의 관계이다. 용정을 떠나 명동에 있는 동지의 집을 찾아가게 된 R은 동지 어머니의 만류로 명동학교의 교원이 되어 동지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것은 R이 과거의 혁명운동 생활과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시작했다는 표징이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R은 한 사회주의 혁명가에서 생활인으로 전변해 가는 것이다. 시간이 지

42) 강경애, 「번뇌」,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1999, 583쪽.

날수록 R은 모를 사이에 동지의 아내 계순이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이 일로 R의 내면은 강한 모순을 겪고 격렬한 심리적 투쟁을 한 끝에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계순이에게 연모의 마음을 표했지만 그 여자의 거절을 당하였다. 이는 그가 자신의 나약성을 확인하고 자아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동지의 아내를 그리워하게 된 나. 글썄 될 뻔이나 한 짓입니까.

한때는 계급을 위하여 이 만주를 무인지경같이 달려다니던 내가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바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실천운동에 몸을 적시어 적과 맹렬히 싸워야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앞이 아뜩해지고 맙니다그려. 이런 타락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의 심신은 이렇게도 나약해졌던 말이지요.⁴³⁾

인용한 바와 같이 R은 동지의 아내를 그리워하는 자신의 타락은 감옥에 간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념적 활동에서 발을 씻고 일상으로 뛰어나간 R은 사적 감정 문제에서 인생의 모순과 양심의 가책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아무리 심신이 나약해지더라도 동지의 아내에게 욕망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이념과 무관한 모랄의 측면에서 전향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은 R에게 모순이 된 것은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지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강경애는 이념의 문제를 윤리적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소설 후반부에서 동지의 아내 계순이는 R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어머니가 곧 돌아온다고 경고를 하며 R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R에 비해 계순이는 끝까지 도덕적 방선을 지키는 의지가 확고한 인물이다. 계순이를 통하여 R은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문제점을 인

43) 강경애, 앞의 책, 586쪽.

식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계순이는 R을 반성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강경애는 한 혁명가의 환멸과 변절⁴⁴⁾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서의 변절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동지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모랄의 측면에서 출발하여 전향자의 내면적 갈등을 파악하고 있다. 강경애는 R을 대표로 한 전향자들에 대해 단순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선 R의 양심적 갈등으로 노출된 자아비판의 작업은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남천의 고발문학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향자가 반드시 스스로의 소시민성을 고발하고 비판할 때에야 새로운 주체 건설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므로 R의 성실한 고백과 자아비판은 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한 숨김없는 폭로이며 새로운 주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다음 소설의 화자인 일인칭의 ‘나’는 R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 R의 행위를 어떻게 서술하느냐는 독자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는 R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쩐지 그가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는 대목에서 작가가 R에 대해 양면적인 시선⁴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 운동이나 계급주의적 동지애보다 개인의 사적 욕망이 우위에 선다고 단언하⁴⁶⁾지 않지만 R의 사적 욕망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그의 양심의 동요에 일정한 동정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시선을 보여준 것은 작가 강경애의 간도체험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강경애 본인은 카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한 동반자 작가로 인정받고 있었으며 남편 장하일이 간도의 사회주의자들과 깊은 교류가 있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는 주변의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번뇌」에서의 R의 형상

44) 장춘식, 「간도 체험과 강경애의 소설」,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188쪽.

45) 정원채, 「강경애의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에 대한 인식」, 『현대소설연구』 4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440쪽.

46) 정원채, 앞의 논문, 452쪽.

은 실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해 조선 민족의 항일투쟁이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중국공산당 동만특별위원회는 1935년 초에 간도의 소비에트 구역을 포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1936년에 이르러 공산유격대는 간도지방을 완전히 포기하였”⁴⁷⁾기 때문에 작품이 발표된 1935년은 간도의 혁명운동의 전망이 아주 어두운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번뇌」에서는 강경애가 이전에 발표한 동반자 성격의 소설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항일무장투쟁 양상, 그리고 강렬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약화되며 결국 전향자의 신변 문제에 안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강경애는 현실 비판의 자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회주의자의 전향 문제에 대해 새로운 모색을 도모하기 시작하며 결국한 사회주의 혁명가의 양심문제를 주목하여 섬세한 부각을 통하여 암흑한 현실에 대한 재성찰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전향자 R의 도덕적 변질을 비판하면서도 전향으로 인해 나약해진 그의 쓰라린 심경에 동정적인 시선도 보여주고 있다.

이리하여 유진오와 강경애 등 동반자작가였던 작가들은 전향자의 양심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념의 문제를 약화시키거나 모랄의 문제로 치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동반자작가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지만 운동의 조직체에 참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상에 대한 이해나 집착이 카프작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카프작가의 작품에서 이념을 고수하느냐 마느냐의 갈등은 그로부터 새로운 주체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요구에 의한 것인데 유진오와 강경애에게는 이러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작품에서 전향자의 자아비판은 주로 모랄의 측면에서 노출되었으며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못하였다.

47) 최학송, 「만주체험과 강경애 문학」,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07, 53쪽.

4. 자아의 상실과 현실과의 타협 거부

1930년대 말기와 1940년대 초에 식민지 현실의 극한 악화로 인해 비카프 작가들의 작품에는 전향자가 육체적이나 심리적인 병적 양상을 띠고 있음과 동시에 몹시 타락하고 자의식이 후퇴해버린 상황이 많이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향자들이 설사 이념성을 상실했다라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비타협적 경향을 보여준 점이다. 이효석의 「장미 병들다」, 최명익의 「심문」, 김사량의 「향수」와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는 바로 이러한 작품들이다.

1938년 1월 『삼천리』에 발표된 이효석의 단편소설 「장미 병들다」는 남죽이라는 여성 전향자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남주인공 현보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남죽이 어떻게 건강한 장미에서 병든 장미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준 작품이다. 카프 작가의 전향소설 가운데 여성 전향자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미 병들다」는 여성 전향자의 전향 양상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 시절에 독서에 열중하고 이론 투쟁을 한 남죽은 학교의 사건을 지도하다가 실패를 맞이하고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후 좌익 극단 「문화좌」의 여배우가 되었다. 당국의 검거에 의해 극단이 해산되고 남죽은 투옥된 몸으로 지내기도 했다. 남죽의 이러한 경력은 앞에서 말한 카프 해체의 계기가 된 신건설사 사건과 유사성이 크다. 바로 진보적 좌파 극단에 참가하여 일제 당국에 검거된 점이다. 남죽의 과거에 대한 언급은 식민지 조선에서 좌익 운동가가 겪은 좌절을 암시한다.

칠 년 후 남죽을 만난 현보는 ‘시대의 파도’에 감탄하면서 남죽이 ‘좀먹기 시작한’ 꽃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소설은 바로 아름답지만 쉽게 침식될 수 있는 장미꽃의 형상을 빌어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강제 전향을 당한 남죽이 현실의 진창에서 자의식의 후퇴로 인해 병든 장미로 전락된 양상을 보여준다.

남죽이 좀먹은 장미꽃으로 변한 첫 번째 표현은 시대 앞에서 강약의 차별

을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장골과 약질의 싸움 장면에서 우연히 시대를 들여다본 듯하여 너무도 강한 암시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현보와 같이 남죽도 깊은 감상에 빠졌다. 고향에 돌아갈 능력도 없고 지향 없이 막연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남죽은 분명히 그 약질의 자리에서 있고 몹시 쇠약한 자세로 활동하게 되었다. 실은 당초 남죽은 쇠약한 자아를 구출하기 위하여 외부의 구출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이런 생활은 나를 죽여요……이 추위, 무섭. 공기가 나를 협박해요--이 적막. 가는 날 오는 날 허구한 날 똑같은 회색 하늘. 참을 수 없어요. 미치겠어요. 미치는 것이 손에 잡힐 듯이 알려요. 나를 사랑하거든 제발 집에 데려다주세요. 원이에요. 데려다주세요.”⁴⁸⁾

위에서 인용한 내용은 술에 취한 후 남죽이 오닐의「고래」의 구절을 외우는 장면이다. 작가가 말한「고래」는 실제로는 미국 극작가 유진 오닐이 1917년에 발표한「고래 기름」이라는 연극을 가리킨다. 이 연극은 아내 애니가 고독에 시달려 미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한 선장 데이빗이 여전히 자기의 영웅 심리를 포기하지 않고 북극에서 고래의 기름을 듬뿍 얻어야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죽이 고향친 것은 바로 애니의 대사였다. 이는 남죽의 갈수록 쇠약해진 정신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남죽이「고래 기름」의 대사를 빌어 현재의 처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강제 전향의 고통은 남죽에게 방향상실과 자아 파괴를 가져다준다. 소설에서 남죽의 자아 상실과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녀가 몸값으로 여비를 받는 점이다.

48) 이효석, 「장미 병들다」, 『한국소설문학대계 16』, 동아출판사, 1995, 500쪽.

“식비 여부가 있겠수. 푸른 지전이 지갑 속에 불룩하든데. 수단두 능란은 하련만 백만장자의 자식을 척척 끌어들이는 걸 보문 여간내기가 아닌 한다하는 난군입니다. 그런 줄 알구 그랬는지 어졌는지 아마두 첫눈에 후려댄 눈친데 하룻밤 정을 쥐두 부자 자식이 좋기는 좋거든. 맨송한 날당이든 것이 하룻밤 새에 지전이 불룩하게 쓸어 든단 말요. 격이 되기는 됐어. 하룻밤을 지냈을 뿐 이튿날루 살랑 떠난단 말요.”⁴⁹⁾

위의 인용문을 통해 남죽이 매춘을 하여 여비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매춘부로 전락하고 심한 성병에 걸린 남죽의 모습은 옛날 적극적으로 이룬 투쟁에 나섰던 그의 모습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혼돈 속에 빠져 있는 현대적 인간상⁵⁰⁾으로 부각된 남죽의 행위는 윤리적 측면으로 보면 비도덕적이고 타락된 것이다. 작품에서 현보는 남죽의 구원자로 등장한다. 그는 남죽에게 사랑의 책임을 느끼고 그녀의 여비를 마련해 주려고 했지만 실업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안의 돈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죽은 그의 도움을 거부하였으며 매춘으로 여비를 얻었다. 매춘이라는 방식으로 육체적 파괴를 함으로써 철저한 자아 파괴를 한 것이었다. 남죽의 행위는 이념과 자아를 모두 상실했지만 자신의 육체를 파괴하는 철저한 자아파괴의 방식으로라도 결코 식민지 현실에 빠질 수 없다는 그의 마지막 결심을 보여준다.

남죽에게 서울은 억압과 절망의 공간이었다. 일제의 강력한 식민통치 하에 있는 서울에서는 전향자가 엄격한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남죽은 서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작품에서는 서울에서 지쳐서 고향에 돌아가 몸을 쉬이고 마음을 가다듬으려는 것이 남죽의 귀향 동기로 제기되고 있다. 그녀는 고향의 풍경을 회상하며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여기서 작가 이효석은 고향을 긍정적인 공간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식민지 배경 하에 나타난 고향 담론과 연결시킬 수 있

49) 이효석, 위의 책, 507-508쪽.

50) 현상길, 「1930年代韓國小說에 나타난 空間意識의 樣相」,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85, 70쪽.

다. 기존의 논의 중 한국현대문학에서 ‘고향’은 식민지 현실의 탈출구, 상실 감 극복의 원동력, 생의 원점이자 귀결점, 기억 속의 고향, 희망의 고향 등 다양한 의미로 제기된다⁵¹⁾. 남죽에게 있어서 고향은 바로 식민지 현실의 탈출구이다. 서울을 떠난 것은 남죽이 식민지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고향으로의 귀환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할 수 있는 출구는 마련해 준다. 만약 남죽이 서울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출구를 찾지 못한 그는 더욱 쇠약해질 것이다. 이리하여 서울은 자아 상실과 전망이 부재하는 공간이며 고향은 현실의 탈출구로서 전향자가 현실 타협을 거부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자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탈출구를 도모하며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전향자의 양상은 1939년 6월 『문장』지에 발표된 최명익의 소설 「심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으로 작가가 여행기를 들려주는 액자구성방식⁵²⁾을 취하고 있다. 화가인 ‘나’는 할빈에서 현혁이라는 전향자와 같이 살고 있는 옛 연인 여옥을 만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나’의 서술에 따라 전향자와 여옥의 이야기는 작품의 중심 내용으로 전개된다.

한때 좌익 운동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현혁은 지금은 아편중독자로 변신하였다. 다년간의 혹사된 신경과 불규칙적인 생활로 안면신경통과 자주 발작하는 위경련에 시달리게 된 그는 즉효적인 약으로 마약에 중독되게 된다. 이러한 타락은 그가 출옥 후 고정된 수입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이다. 현실적 곤경은 전향자들이 과거의 이념이나 신앙을 버리고 자아 상실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혁에 따르면 그가 아편을 먹은 동기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물론 아편을 먹는 이유랄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병, 빈곤, 고독, 절망, 자포자기, 이런 이유랄까— 핑계랄까—. 아마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나 동기랄 것은 ‘자포자기’—겠지요. 신병, 빈곤, 고독, 절망, 이런 순서로 꼬아 내려가다가 흔히

51) 김현정, 『한국현대문학의 고향담론과 탈식민성』, 역락, 2005.

52) 이계열, 「崔明翊 小說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2, 65쪽.

들 ‘자포자기’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신병이나 빈곤은 그리 쉽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자포자기를 하고 않는 것은 각자 그 사람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말하자면 아무런 시대나 환경이라도, 사람을 타락시킬 힘은 없다고 봅니다. 그 반대로 타락하는 사람은 어떤 시대나 환경에서든지 저 스스로 타락하고야 말, 성격적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⁵³⁾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현혁은 질병과 가난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요소로 결코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며 그러므로 자신의 타락은 시대와 환경과 무관하며 자기의 성격적 결함에서 나온 것으로 말한다. 여기서 현혁의 고백은 앞에서 강조한 카프작가의 전향소설에서 제기된 전향자의 자아비판과는 구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카프작가의 전향소설에서의 전향자의 자아비판은 과거 문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주체를 건설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앞에서 분석한 비카프작가 강경애의 「번뇌」의 전향자 R의 자아비판은 비록 새로운 주체를 건설할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도덕적 측면인 양심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심문」에 이르면 전향자 현혁에게서는 이러한 주체 건설이나 도덕적 측면의 갈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의 자아 성찰은 현실적 의미가 없고 자굴적 경향을 띠고 있어서 더욱 소극적으로 보인다.

이미 현실 속에서는 출로를 찾지 못하고 아편을 피우면서 자아의 세계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된 현혁은 자의식의 후퇴를 보여준다. 끊임없이 찬란했던 과거의 기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현혁은 결국 현실의 세계에서는 소외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여옥이 그를 따라간 이유는 바로 과거에 혁혁하고 유명했던 그의 패기와 현실 극복의 힘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여옥에게 아편을 피우도록 강요한 원인은 그녀가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녀가 현혁의 곁에 있어야만 그는 비로소 지속적으로 과거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으로 보

53) 최명익, 「심문」, 『월북작가대표문학 12』, 서음출판사, 1989, 136쪽.

면 현혁은 타락한 주의자이지만, 그의 타락은 과거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를 폐쇄한 결과이다. 이 역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몸과 정신을 파괴하면서까지 결코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의 심경을 대변해 준다.

따라서 아편 중독이라는 자아 파괴적 행위를 통하여 과거의 회억에 잠기는 것은 전향자 현혁이 현실세계와 멀리 떨어지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세계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현실순응에 대한 거부,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지 못하더라도 일제가 지배하는 현실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은 결국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설 결말에서 현혁은 아편 값을 얻기 위해 여옥과 함께 사는 집의 열쇠를 '나'에게 팔아버렸다. "이미 저를 사랑하기를 잊은 현은 기회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열쇠'를 팔 것이외다."라고 고백하는 여옥의 말을 통하여 현혁이 이미 완전한 자아 상실의 길로 나아갔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현혁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깨지자 자살을 선택한 여옥의 비극을 통하여 현혁의 미래도 암담할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비판의식과 개척의식을 완전히 상실하고 스스로 굴종하는 자세로 자기 파괴에 이른 현혁에게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전향자에 대한 최명익의 복잡한 시선을 보여준다. 그가 전향자의 타락을 부각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자기 상실의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과거에 대한 미련, 현실과 타협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자기 파괴를 통해 잠깐의 정신적 자유를 얻을 수밖에 없는 전향자의 슬픈 운명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동시에 전향자를 구원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통해 현실의 암울함과 억압을 확인하며 시대와 일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다.

이처럼 투옥 경험으로 인해 질병을 얻어 방향감을 상실하고 자아를 봉쇄하면서도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전향자의 모습은 1941년 2월에 김사량이 『문장』지에 발표한 단편소설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한 신문기자가 왕백작이라는 사나이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형

식을 취하고 있다. 아나키스트였던 왕백작은 신문기자가 동경 A경찰 유치장에서 만난 사람이었으며 수심 회나 경찰서에 붙들려 다닌 경험이 있었다. 감옥에서 왕백작은 심한 각기를 앓고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졌다. 이러한 왕백작의 병적 양상은 카프작가의 전향소설에도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전향소설의 주인공들은 투옥 시의 후유증으로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거나 정신적 질환의 증세를 보이고 있⁵⁴⁾’다는 장성수의 지적이 보여주듯이 카프작가의 전향소설은 주로 전향자들의 출옥 후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병리 현상을 부각한 것이며 이러한 병리 현상이 나타난 원인이 투옥 때문임을 암시한다. 본고에서 고찰한 「번뇌」, 「심문」 등 작품도 출옥 후의 병리적 현상을 부각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처럼 직접 주의자의 투옥 당시의 경험과 병리 현상을 서술한 것은 보기 드문 경우이다.

감옥에서의 만남은 신문기자와 왕백작의 첫 번째 만남이다. 출옥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열차에서 두 번째로 만난 왕백작은 첫 번째 만남에서보다 더 심각하게 정신적 질병으로 방향감을 상실한 모습이다.

“나는 아아 지금 당장 내 자신으로부터도 복수를 받고 있는 터이야. 목줄을 즐라매구 있는 터이야. 희망두 없구 즐거움두 없구 슬픔도 없구 그리구 또 목적조차 없구.....아아 나는 이 이민열차에 탔을 때만이 행복인 걸 어떡허나. 나는 그들과 같이 울 수가 있구 부르짖을 수가 있어.”⁵⁵⁾

인용한 내용은 왕백작이 열차에서 ‘나’에게 한 말이다. 출옥 후 왕백작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방황하고 절망적으로 살아왔다. 그는 이민열차를 타는 방식으로 자기의 외로움을 위로했다. 이민열차에서 그는 ‘만주’로 간 이민자들과 같이 울 수도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민 열차는 나아갈 방향이 있고 이민자들은 새로운 삶을

54) 장성수, 「1930년대 후반의 한국 “전향소설”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28집, 한국언어학회, 1990, 226-227쪽.

55) 김사량,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 『한국소설문학대계 17』, 동아출판사, 1995, 511쪽.

꿈꾸고 있었지만 왕백작은 이민자들과 같이 국경을 넘지 못했다. 열차에서 비명을 지르는 그의 모습은 방향을 잃은 전향자의 비통한 심정을 말해 준다.

외부와와의 접촉을 단절하고 자아 봉쇄적인 자세로 행동한 왕백작의 모습은 그가 여전히 전향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왕백작의 경향은 신문기자에게 자아 반성의 계기를 준다. “용기를 내어 갱생치 않으면 안 되겠다, 새로운 생명을 다시금 찾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맹세하”⁵⁶⁾던 신문기자는 왕백작의 모습에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것은 다른 전향소설에서는 드물게 나타난 상황이다. 카프작가의 작품에서 전향자는 항상 외부로부터 반성의 계기를 얻게 된다. 예를 들면, 김남천의 「처를 때리고」는 전향자의 허위성을 강력히 질책하는 아내의 비판을 통하여 자아 고발과 자아 반성의 과제를 제시한다. 한설야의 「이녕」에서 주인공은 출옥 후 지속적으로 주변 인물들의 속물성에 비추어 자신을 다잡으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되살렸다. 이들 작품에 비해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는 갱생을 도모하지 않는 전향자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현실에 영합하고 사회참여를 하려고 한 주변 사람에게 양심적 가책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전향문제에 대한 비카프작가의 독특한 견해를 볼 수 있다. 카프작가의 경우 본인 스스로도 전향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외부가 전향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 많은 주의를 돌렸을 것이다. 그들은 이 단체 내부에서 출발하여 자체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들에 대한 외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판하는 양상을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제3자의 위치에서 있는 김사량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외부에 끼친 전향자의 적극적인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은 왕백작이 끝까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방공연습 당일 길가에서 신문기자는 경방단원들에게 훈시하고 있는 왕백작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언급된 경방단은 1937년 중일전쟁의 시작과 함께 설치된 소방

56) 김사량, 위의 책, 507쪽.

조직체이다. 이 단체는 당시 일본인 거류지의 화재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조직이다. 중일전쟁의 폭발과 함께 전시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1937년 11월 18일 당국은 '방공법조선시행령'도 제정하고 반포하였다.⁵⁷⁾ 따라서 이 경방단은 조선반도에 살고 있는 일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를 전시 체제로 편입시키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기자의 친구에 따르면 왕백작이 경방단 반장이 된다면 거국일치의 체제로 진입한 것에 기여할 것이며 생활의 목표와 의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따라서 경방단 단원이 된 것은 현실에 순응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왕백작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으면 좋으련만.”

하며 신문기자는 한참 동안 비루 잔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짓는다. 그리고 또다시 계속했다.

“그러나 그 뒤 또 어떤 날…….”⁵⁸⁾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왕백작이 경방단 단원으로 결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은 왕백작이 현실에 순응하여 삶의 목적을 다시 찾기를 바라지만, 그에게 현실에 순응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배신을 의미한다. 결코 과거에 신봉하던 이념과 결별할 수 없었던 왕백작은 결국 자아를 상실하더라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쪽을 택한다.

1941년 7월 『문예춘추』지에 게재되었다가 1942년 4월 단편집 『고향』에 수록된 김사량의 「향수」에서는 자아를 상실하고 파괴하면서도 외부의 구출을 거절하며 현실과의 타협을 거절한 여성 전향자의 형상을 부각하였다. “작품의 창작동기가 된 김사량의 첫 북경방문은 그가 동경대학을 졸업하던 1939년 봄에 이루어진다”⁵⁹⁾.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작가의 실제 북경 방

57) 「防空法朝鮮施行令 十八日公布(東京)」, 『동아일보』, 1937.11.19, 1면.

58) 김사량, 앞의 책, 515쪽.

59) 이양숙, 「일제 말 북경의 의미와 동아시아의 미래」, 『외국문학연구』 제5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4, 194쪽.

문 시간보다 1년 앞당겨졌다. 작품은 작가 자신의 분신이기도 한 주인공⁶⁰⁾ '나'(이현)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1930년대 말 이현의 누나 가야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의 삶을 서술하였다.

중국 고미술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급행열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북지로 간 이현의 또 다른 목적은 민족주의자였던 누나 가야와 매부 윤장산을 만나려는 것이었다. 3·1 운동 이후 세계 각지로 망명했기 때문에 행방불명이 된 누나와 매부가 북경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후 이현은 어머니가 준 삼백 원을 가지고 누나를 찾아가게 되었다. 이로써 북경에서 누나와의 만남은 소설의 주요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다.

북경에서 누나를 만난 이현은 누나의 커다란 변화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기억에서 학교를 열어 개화사상을 전파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던 나비처럼 아름다운 누나는 이제 광채를 잃고 무척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누나는 “주변 사람들의 전향에 의해 더욱 절망을 느끼게 되었다”⁶¹⁾. 과거 민족주의운동에서 강한 지도력을 지닌 매부 윤장산은 이제 부하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누나를 버렸고 윤장산의 부하인 옥상렬은 전향한 후 일제의 특무기관에서 일하게 되며 지금 가야를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외에 가야와 윤장산의 아들 무수는 이제 일본군에서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는 “더 자기모순과 회의와 고민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⁶²⁾고 외로워하게 되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 가야는 방향감을 잃고 몹시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소설에서 그녀의 타락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바로 아편중독자로 전락한 것이다. 「심문」에서 전향자가 아편을 처음 먹은 이유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인데 「향수」에서는 가야가 아편을 피우는 이유를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앞에서 말한 가야의 외로운 처지를 고려하

60) 김학동, 「金史良 문학과 內鮮一體·朝鮮民衆의 言語와 삶을 지키려한 苦肉之計의 문학을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제32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7, 266쪽.

61) 나병철, 「김사량 소설에 나타난 사상적 전향과 문화의 기억」,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7집, 한국현대문학회, 2019, 55쪽.

62) 김사량, 앞의 책, 31쪽.

면 그녀도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아편을 먹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육체적이나 심리적 질병이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개인을 둘러싼 억압적 사회구조, 즉 천황제 파시즘이라는 사회구조적 성격”⁶³⁾에 있다고 보겠다. 아편을 먹는 것은 심한 사회적 갈등에 처해 있는 전향자가 일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가야의 아편 밀매 행위는 더 한층 타락한 것이다. 이것은 한 민족주의자의 양심마저 상실한 극한 타락을 보여준 대목이다. 아편 판매로 생존을 유지하는 그녀의 행위는 일종의 자아 파괴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적 파괴이며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극도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가야는 이념을 완전히 상실하고도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그와 옥상렬, 그리고 이현 두 인물과의 대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족주의자였던 옥상렬은 전향한 후 일제의 특무기관에서 일하게 되고 과거의 동지인 가야를 감시하는 업무를 맡았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옥상렬은 심지어 자신의 전향을 합리화하였다.

“우리 망명객에게는 철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아편을 하면 안 된다. 또 아편을 팔아 지나인의 피를 빨아먹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즉 반도인민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인의 경우에도 그러하듯이, 또한 지나인의 경우에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에 전향한 것입니다. 아니, 사고방식을 전진시킨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이 비극적인 사변이 하루라도 빨리 우리 동아의 대지에서 사라지도록 협력할 때, 비로소 일본인을 위해서도 지나인을 위해서도 좋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⁶⁴⁾

63) 장성수, 「1930년대 후반의 한국 “전향소설”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28집, 한국언어문학회, 1990, 228쪽.

64) 김사량, 앞의 책, 38쪽.

옥상렬의 말을 통해 그가 가야의 아편중독 및 아편밀매 행위에 대해 극도로 혐오함을 알 수 있다. 옥상렬에 따르면 그는 동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사변이 빨리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전향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전향 후 일제의 특무기관에서 일하며 자신의 과거 동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결국 이는 일제가 추진해온 대동아공영이라는 식민정책에 대한 협력의 구현이며 그의 전향은 일제에의 협력을 의미한다. 작품에서 김사량은 대동아공영과 같이 일제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미화를 위해 만들어 낸 말들을 사용하며 일제의 정책을 긍정하는 듯한 표현⁶⁵⁾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그의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 모두 옥상렬과 같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하면 조선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여기서 가야가 옥상렬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그와 함께 적극적으로 전향하지 않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가야의 두 번째 표현은 바로 동생 이현의 귀향 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향수」에는 전향자를 구출할 의지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구출 의식은 이현이 북경 골동품 가게에서 우연히 발견한 고려의 도자기를 조선으로 가져가려는 심리와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죽음과도 같은 누나의 신음소리를 들은 듯이 생각되었다. 아아, 이 건 누나가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다,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다, 하고 그는 소리쳤다.⁶⁶⁾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현이 고려의 도자기가 그에게 “나를 구해 주세요. 나도 구해 주세요”라고 낸 소리에서 누나 가야가 그에게 구원을 청하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느꼈다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가야를 비롯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가지 못하는 조선민중의 안타

65) 김학동, 「金史良 문학과 內鮮一體: 朝鮮民衆의 言語와 삶을 지키려한 苦肉之計의 문학을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제32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7, 266쪽.

66) 김사량, 앞의 책, 47-48쪽.

까운 상황을 해소하고 싶”⁶⁷⁾은 작가의 의도를 보여준다. 이현의 생각에는 고려의 도자기들은 해외로 망명한 조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어머니로부터 받아온 돈으로 도자기를 샀다. 누나 가야를 조선으로 데려가지 못하더라도 고려의 도자기를 가져간다면 일종의 구원이기도 할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현의 구원 의식의 이면에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순응하고 마는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그의 고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이 차표로 돌아간다. 내 몸속에도 이 차표 값만큼 지난인의 피가 녹아들어와 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훌륭한 동아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다, 한번 더 누나와 매부를 위해 다시 오자. 이제는 누나와 매부 차례다.”⁶⁸⁾

인용한 내용은 이현이 누나와 매부를 구출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동아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앞에서 옥상렬은 “전쟁이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무서운 질곡임을 시사하고 있었으며 이현은 그 파괴의 질서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꿈꿀 수 있는 다른 세상을 갈망하기에 이른다.”⁶⁹⁾ 이 점을 통하여 이현이 일제의 동아신질서건설의 기만책에 순응하고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국가를 넘어 동아라는 범위에서 누나와 매부를 구원하는 방법을 찾으려 했는데 그 동아신질서건설의 주도자가 일본제국주의라는 본질을 간과하였다. 결국 이현이 제시한 누나 일가를 구출하는 방법은 여전히 체제 순응일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가야가 이현의 귀향 청구를 거부한 것은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홀로 외롭게 베이징을 떠돌아다니더라도 일제의 식민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소위 대

67) 김학동, 「金史良 문학과 內鮮一體·朝鮮民衆의 言語와 삶을 지키려한 苦肉之計의 문학을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제32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7, 267쪽.

68) 김사랑, 앞의 책, 63쪽.

69) 나병철, 「김사랑 소설에 나타난 사상적 전향과 문화의 기억」,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7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19, 56쪽.

동아공영의 협력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미 이념성을 상실해 민족 해방의 길을 찾을 능력이 없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도 식민 현실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가야의 형상은 적극적으로 일제의 식민 정책에 협력한 옥상렬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김사량은 이 두 유형의 전향 양상을 부각하고 전향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민족주의자 가야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운명을 통해 1940년대 초에 전향자들의 비참한 처지와 식민 말기 민족 운동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식민지 조선에 대한 우려를 짙게 담고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일제 말기 식민지 조선의 전향문제에 대한 비카프작가들의 특수한 시각을 염두에 두고 비카프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전향 양상을 살펴보았다. 카프의 1차, 2차 검거와 해산계의 발표를 계기로 식민지 조선에서의 전향문제는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 문학사에 나타난 전향은 일본의 상황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중일전쟁과 동아신질서의 구축을 중요한 계기로 전향의 의미도 변화했다. 전향이 천황제에로의 귀의를 의미했던 일본에서나 민족독립운동의 포기, 일본 체제의 순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식민지 조선에서나를 막론하고 전향의 일차적 의미는 우선 사상의 포기라고 규정해야 한다. 기존의 전향 소설의 개념 규정은 작가 본인이 반드시 전향자여야 하는가, 전향문제를 작품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가, 전향을 작품의 창작 동기 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혼란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 논의한 작품들을 전향소설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자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비카프작가의 작품을 굳이 전향소설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이들의 작품이 전향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식민지의 전향문제에 대한 비카프작가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사회주의자 외 민족주의자, 아나키스트 등이 모두 전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아나키즘 등은 각각 다른 진영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상운동들이 모두 민족독립운동의 일부분으로 수용되었다. 게다가 비카프작가들은 동반자 작가, 신인작가 등 서로 다른 신분을 지녔음으로써 그들은 각각의 인식 틀에 따라 전향자의 신분을 설정하였다. 다른 하나는 카프작가에 비해 비카프작가가 전향문제를 관찰할 때 제3의 관찰자의 자리에서 있다는 것이다. 카프작가들은 전향의 현장에 있었고 직접적으로 전향의 주체가 되었던 것인데 비해 비카프작가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향 현실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전향자에게 있어서 이념의 세계로부터 생활의 세계로의 회귀는 주의자의 신분으로부터 소시민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데 이때 전향자에게 나타난 소시민성의 문제는 전향문제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카프작가의 작품이든 비카프작가의 작품이든 전향자의 소시민성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하였다. 유진오와 강경애는 전향자의 양심 문제를 다룰 때 이념의 문제를 약화시키거나 모랄의 문제로 치환한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이념의 포기 여부와 그로 인한 갈등, 자책감에 치중했던 카프작가의 작품과는 구별된다. 비카프작가들은 운동의 조직체에 참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상에 대한 이해나 집착이 카프작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제3자의 자리에서 서 있었음으로 식민지 조선의 전향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카프작가가 양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로부터 새로운 주체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운동의 요구가 있었던 것에 비해 비카프작가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주체 건설의 요구가 없었으므로 작품에서 전향자의 자아비판이 나타나도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만 것이다.

이효석의 「장미 병들다」, 최명익의 「심문」, 김사량의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와 「향수」 등 소설에 나타난 전향 주인공은 모두 자아를 파괴하고 새 삶

을 개척하지 못한 채 파멸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전향자들은 이념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도덕적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식민지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비타협적 경향을 보인다. 1930년대 말기와 1940년대 초기의 시대적 환경의 극한 악화에 따라 작가의 현실적 인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강경애, 『번뇌』,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1999.
 김사량,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 『한국소설문학대계 17』, 동아출판사, 1995.
 류연산, 『김강사와 T 교수』, 『한국소설문학대계 16』, 동아출판사, 1995.
 _____, 『장미 병들다』, 『한국소설문학대계 16』, 동아출판사, 1995.
 _____, 『항수』, 『한국 근대일본어 소설선 1940-1944』, 역락, 2007.
 유진오, 『가을』, 『한국소설문학대계 16』, 동아출판사, 1995.
 최명익, 『심문』, 『월북작가대표문학 12』, 서음출판사, 1989.

2. 단행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문화사대계』 1권, 1964.
 금인숙·문상석·전상숙, 『한국 민족주의와 변혁적 이념체계』, 나남, 2010.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1968.
 김윤식, 『박영희 연구』, 열음사, 1989.
 김윤식·정호용,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류연산,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90.
 _____, 『김윤식 선집 1·문학사상사』, 솔 출판사, 1996.
 _____, 『김윤식 선집 2·소설사』, 솔 출판사, 1996.
 _____, 『김윤식 선집 3·비평사』, 솔 출판사, 1996.
 서경석, 『한국근대리얼리즘문학사연구』, 태학사, 1998.
 송건호·강만길, 『한국민족주의론』, 창작과비평사, 1982.
 전상숙, 『한국정치사상사』, 백산서당, 2005.

3. 학위논문

- 권보드레, 『1930년대 후반의 프롤레타리아작가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4.
 권희영, 『1930년대 한국 전향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2.
 김기훈, 『한국민족주의 운동의 이념적 분화』,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2013.
 김동환, 『1930년대 한국 전향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7.
 김용선, 『김남천 전향소설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2.
 김인옥, 『1930년대 후기 한국 전향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7.
 김효정, 『1930年代 轉向小説의 意識 變貌 樣相 研究』, 大邱曉星가톨릭 박사논문, 1998.
 유상균, 『1930년대 후반 전향소설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07.
 윤부희, 『崔明翹 小說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3.
 이계열, 『崔明翹 小說 研究: 作中人物의 변모양상을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2.
 이호룡, 『한국인의 아나키즘 수용과 展開』,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0.
 장성규, 『1930년대 후반기 소설 장르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2.

정하늬,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4.

진영일, 『일제 강점기 전향소설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1989.

최학승, 『만주체험과 강경애 문학』,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07.

홍종욱, 『중일전쟁기(1937-1941) 사회주의자들의 전향과 그 논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0.

4. 학술논문

곽근, 『韓國 同伴者作家 研究 序說』, 『한국문학연구』 9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6.

박은숙·장효연, 「전향 그리고 출로 모색」, 『한국(조선)어 교육연구』 5권,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07.

유문선, 「동반자작가의 전향에 관한 시론: 현민 유진오의 경우」, 『冠嶽語文研究』 제8집, 1983.

이상갑, 「『斷層派』 小說 研究: '전향지식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韓國學報』 18권 1호, 일지사, 1992.

장성수, 「1930년대 후반의 한국 "전향소설"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28집, 한국언어학회, 1990.

장춘식, 「간도 체험과 강경애의 소설」, 『여성문학연구』 11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정원채, 「강경애의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에 대한 인식」, 『현대소설연구』 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정주아, 「不安의 문학과 轉向時代의 균형 감각 - 1930年代 平壤의 학생운동과 『斷層』派의 문학 - 」, 『어문연구』 39권 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정호웅, 「유진오론」, 『문학교육학』 2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非卡普作家小说中的转向样相研究

趙珂* · 李海英**

本文關注到非卡普作家看待殖民地轉向問題時的特殊視角，考察了他們作品中展現的轉向情況。在看待轉向問題時，非卡普作家主要具有兩種獨特的視角，首先，從轉向主體來看，非卡普作家的小說中轉向主人公不再局限於社會主義者，而是將民族主義者和無政府主義者等都包括在內。其次，與卡普作家相比，非卡普作家站在觀察者的角度來看待轉向問題。同被稱爲同伴者作家的俞鎮午和姜敬愛在刻畫轉向者的良心問題時，展現出弱化理念問題，或是將理念問題轉換爲道德問題的傾向，這與卡普作家的轉向小說中著重展現的因是否放棄理念而出現的矛盾、自責心理有所區分。李孝石、崔明翊和金史良的小說中轉向者都展現出自我破壞、無法開拓新生活的破滅的情況，這展現不願與殖民地現實妥協的傾向。

關鍵字：非卡普作家，韓國轉向文學，轉向樣相，現實認識

논문투고일：2024년 1월 14일 || 심사완료일：2024년 5월 2일 || 게재확정일：2024년 5월 14일

* Ph.D. of Korean Literature,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Ocean University of China, the First Author

**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Ocean University of China, Corresponding Author